

제12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

BIBLICAL HISTORY
OF REDEMPTION
SEMINAR

강 / 의 / 노 / 트



일시 및 장소

2023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5시(찬양 시작 1:30)

평강제일교회 모리아성전 및 온라인

강 의

제 1 강 | 언약궤의 구속 경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출 25:10-22, 29:42-43)

제 2 강 | 성막의 완성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출 40:1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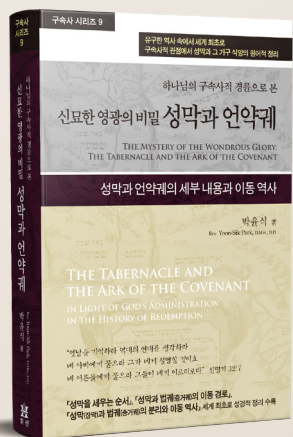
강 사

제1강 | 변제준 목사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총회신학원 M. Div.
Lael College and Graduate School Ed. D
Faith Theological Seminary Th. D

제2강 | 오인정 선교사

총회신학교 신대원 목회학 석사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미국 Knox Theological Seminary(D. Min.)



오직
예수
Only Jesus

제12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 BIBLICAL HISTORY
OF REDEMPTION
SEMINAR

강 / 의 / 노 / 트



강의1 | 변제준 목사

언약궤의 구속 경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10-22, 29:42-43, 3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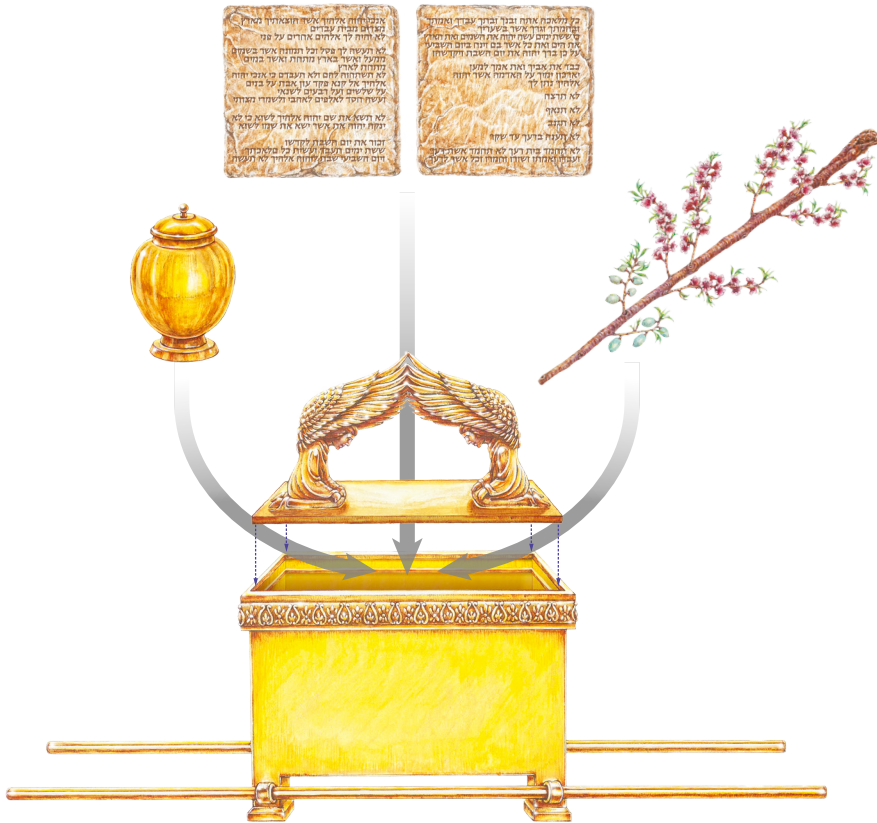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 비유이다(히 8:5, 9:9, 23-24, 10:1).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으로 오셨다(요 2:19-22).

성막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 준다(요 14:6).



하나님께서 성막 계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성물들보다도 언약궤를 먼저 언급하셨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비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성막 전체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다.

특히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므로(출 25:22), 언약궤의 거룩성은 더할 나위 없이 엄격히 지켜졌으며, 궤 앞에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출 16:33-34, 민 10:35-36, 수 6:8).



1. 언약궤의 구성 및 특징

(1)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출 25: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한 언약궤를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광야의 조각목(아카시아)으로 만들었다.

그 크기는 장이 2.5규빗(114cm), 광이 1.5규빗(68.4cm), 고가 1.5규빗이다(출 25:10, 37:1).

사막의 마른 땅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무런 풍채도 없이 자라난 천한 싯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의 참혹한 십자가 고난을 예표한다(사 53:2).

또한 조각목은 수없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를 상징한다(사 5:7, 61:3, 눅 23:31, 욕 23:10).

(2) 언약궤는 정금으로 안팎으로 썼다.

출 25:11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 궤 자체의 귀중함(욥 23:10, 벰전 1:7, 계 3:18).
- 궤 속에 있는 십계명의 극한 귀중성(시 19:7-10).
-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고 순전한 신성 예표(사 9:6-7, 롬 1:3-4, 골 2:3).
-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보다 귀중한 구속의 보배피(벰전 1:18-19)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삼으심(고전 3:16, 6:19)
- 구속받은 성도의 귀중성(사 43:1, 4)
-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벰전 1:7, 벰후 1:1)

(3) 속죄소를 두었다.

언약궤를 덮는 덮개(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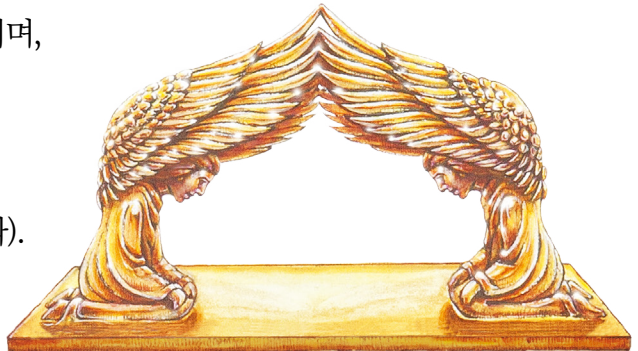
속죄소는 언약궤와 그 규격이 같다.

출 25:17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 25:21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כַּפֹּרֶת)이며,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כָּפַר)에서 유래하였다.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처소’이다(시은좌).



(4)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속죄소 위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하여 두 그룹을 쳐서 만들었다.

출 25:18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출 25:19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쳐서(נִשְׂקָהּ, 미크샤) - 두들겨서

그룹(קִרְבָּן)은 아카디아어 ‘카리부’에서 유래하여 중보자, 셴어인 ‘카로브’와 같은 단어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뜻이다.

두 그룹은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와 결코 분리될 수도, 떨어질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이는 그룹의 사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호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계 4:6-9, 5:11-12, 7:11-12, 19:4-5).

2. 언약궤의 구속경륜

(1) 언약의 두 돌판

①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의 두 돌비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이다.

속죄소 위의 두 그룹이 언약의 두 돌판을 보호하고 있다.

시 89:14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시 97:2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② 심판의 보좌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판단이다.

시 105:5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시 105:6 (5절에 포함되어 있음)

시 105:7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판단 보좌이다.

시 9:7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시 9:8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판단 - '미쉬파트'(מִשְׁפָּט) : 판결, 정의, 공정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는데, 다윗 집의 보좌이다.

시 122:5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단 7:9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는 불이며

단 7: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이시다.

요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 5: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2) 속죄소

①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출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레 16: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말씀하셨다.

민 7: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던다

유일하게 속죄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언약궤에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인 율법의 잣대대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죄를 덮어 주시겠다’(시은좌)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 준다.

롬 4: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죄인은 속죄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삼상 6:19, 민 4:20).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듯이 이제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신다(요 14:6, 히 1:2).

②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곳

속죄소가 죄사함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매년 대속죄일에 그곳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기 때문이다(레 16:14-15).

하나님께서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죄를 간과해 주신다.

대제사장은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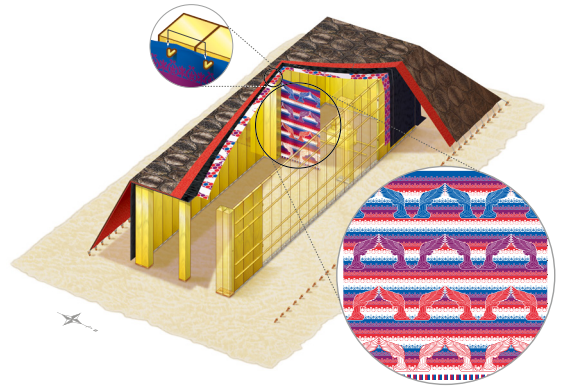
◆ 속죄소 동편에 뿌린다 - 하나님 임재의 길을 정결케 한다(겔 43:1-5).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려면 그 오시는 길을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야 한다.

◆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예표(히 9:12, 10:12, 롬 31:34).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죄 값을 치르실 때, 휘장이 영원히 열렸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속죄소이다(요일 2:2, 엡 1:7).

히 9: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 - ‘힐라스테리온’(ἱλαστήριον) : 시은소, 속죄제물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죄를 덮어 아예 못보신척 간과 하신다(사 44:22, 미 7:18-19).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의 보좌가 영원한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엡 2:13-18, 골 1:20-22, 벧전 1:18-19).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3) 속죄소 위의 두 그룹

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준다(출 25:22, 삼하 22:11, 대상 13:6, 시 18:11, 80:1).**

시 80:1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취소서

◆ 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히 9: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날날이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셨다(창 3:21).

◆ 그룹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는다.

하나님의 귀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거룩을 지킨다(출 25:18-20, 37:7-9). 증거궤 위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공의를 초월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 준다.

◆ 두 그룹의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죄정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를 앙망하는 태도이다 (출 25:20, 37:9, 히 4:16, 사 40:31, 벰전 1:12).

벰전 1: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살펴 보기를(*παρακύπτω*, **파라킵토**): 보기 위해 허리를 굽히다,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보다
몸을 굽힌 채 들여다 보다.

②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창 3:24).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 생명나무 길을 막고 지키고 있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성화되고 온전하게 된 후에는 낙원으로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함을 회복한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계 22:14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

계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③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본연의 본성

그룹은 곧 생물인데(겔 10:15, 20),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최고의 존귀한 상태로(고후 4:4, 히 1:3), 하나님의 거처로 회복된 인간 본연의 존귀하고 고귀한 본성을 보여 준다(겔 10:14, 계 4:7).

- ◆ 사람의 얼굴 - 지성
- ◆ 사자의 얼굴 - 용기
- ◆ 소의 얼굴 - 충성과 인내
- ◆ 독수리 - 신속성과 통찰력

3. 결론

그룹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의 열매가 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한다.

겔 41:18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겔 41:19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히 1:6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강의 2 | 오인정 선교사

성막의 완성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40:17-3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준비시키실 때,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 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말씀하셨다(출 3:12). 그 말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내 광야에 성막을 짓게 되었다(출 3:1, 19:1-2, 40:2, 17). 그리고 그곳에서 범죄한 인간이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레 1:3-4, 4:3-4, 히 5:1, 9:21-22).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이처럼 성막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막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 올 때 비로소 그 성전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출 25:22),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출 29:42-43)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출 3:7-8, 요일 4:10, 19), 그곳에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동행하면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길 원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탈출하여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히 12:22),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계 21:3).

1.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완성된 성막

(1) 성막 건축 명령과 성막의 설계자

① 성막 건축 명령(출 25:10-27:21, 36:8-38:31)

시내산 6차 등정 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출 25:9),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출 26:30) 명령하셨다.

②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그것이 먼저 모세에게 계시 되었고(출 25:9, 40, 26:30, 27:8, 히 8:5),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빠짐없이 순종하여 성막을 세웠다(출 39:32, 42, 40:16, 19, 21, 23, 25, 27, 29, 32).

식양은 히브리어 ‘타브니트’(תבנית)로, ‘모양, 형태, 구조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성막의 각 부분의 정확한 치수, 무게, 색상, 재료, 형태, 문양까지 보이셨다. 즉, 성막에 관해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고안은 하나도 없고, 세밀한 부분 하나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출 25:9)대로 그 '본'을 따라 만든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요 참 것의 그림자이다(히 8:5, 9:23-24).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 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 9: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 9: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ὑποδείγμα, ‘휘포데이그마’ : 복사본, 견본, copy, example)대로 그 본(τύπος, ‘튀포스’ : 양식, 모델, 형태)을 좇아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지었으므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하늘의 참 성전’을 바라볼 수 있다(히 8:2, 9:11, 24). 그곳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2) 성막 건축 기간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하여(민 33:3), 그해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다(출 19:1). 그들은 이곳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렀으며, 성막 건축은 모세가 시내산 8차 등정을 마치고 내려온 7월 10일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고(출 34:31-33), 백성들은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처음으로 세워졌으므로(출 40:2, 17), 169일, 약 24주 만에 완성되었다.

(3) 성막을 주신 목적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선명한 임마누엘의 계시였다.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 29:46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셨다. 그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계속 동행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겠다는 뜻이다.

(4) 백성들의 헌신 속에 성막의 각 기구의 제작과 성막의 완성(출 35:4-40:16)

출 35:10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출 35:29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출 36:1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출 39:32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출 39:42-4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⁴³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에서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아사(אָסָא)’가 세 번 나오는데(“필하매”, “필한”, “되었으므로”), 모두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의 구성 요소들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다한 헌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대로 되었으므로’ 백성들을 축복하였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 (창 1:31), 지으시던 일을 마치신 후 복을 주신 것(창 2:1-3)을 생각나게 한다.

성막 건축 과정 역시 하나님의 창조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가르쳐준다.

2. 성막의 봉헌순서(성막의 조립, 출 40:1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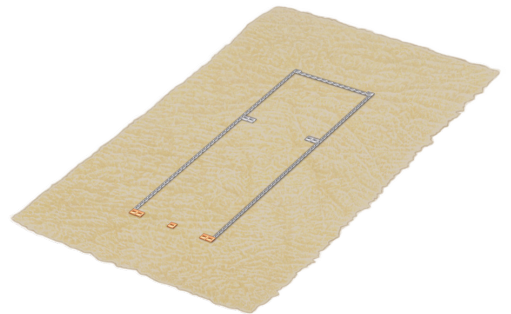
성막을 세울 때 무엇부터 세웠을까?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였으므로, 쉽게 조립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했고, 조립식이므로, 연결 고리들이 매우 중요하다.

(1) 출 40:18-19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① 그 받침들을 놓고 ② 그 널판들을 세우고 ③ 그 띠를 띠우고 ④ 그 기둥들을 세우고 ⑤ 또 성막 위에 ⑥ 막을 펴고 그 위에 ⑥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출 36:20-38)
- (성소 크기 : 장 30규빗(13.68m), 광 10규빗(4.56m))

① 받침들을 놓고(יָסַד, ‘에덴’ : 기초, 토대)

널판 밑의 은받침 96개(널판 48개당 2개씩), 지성소 기둥 은받침 4개, 성소 기둥 놋받침 5개를 놓았다.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 중 계수함을 받은 남자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어졌다(출 30:11-16). 속전(קֶפֶר, ‘코페르’)은, ‘죄를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에서 구원하셨다. 성막의 가장 기본 틀인 은받침이 땅속에 묻혀서 성막을 지탱하고 있다.



② **48개의 널판 세움** :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썼다. 널판의 크기는, 폭 1.5규빗(68.4cm), 길이 10규빗(4.56m), 두께 0.25규빗(11.4cm)이다. 널판을 세울 때 쓰러지지 않도록 2개의 축끼리 서로 연결하여 결합시켰다.

③ 널판에는 **4개의 금고리(링)가 있었는데, 거기에 띠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끼어서 널판을 결합시키므로 널판들을 서로 밀착시켜 빈틈이 없게 하고 단단하게 고정하여 성막을 튼튼하게 서 있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널판 중앙을 지나가는 ‘**중간 띠**’는 널판 속에 끼워져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성소 전체를 한 몸체를 이루어, 아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했다.

④ **기둥들을 세우고** : 지성소 입구 기둥 4개, 성소 입구의 기둥(기둥머리) 5개

⑤ **막을 펴고(출 26:1, 7)**

- **내부양장(미쉬칸)** : 청색(하늘), 자색(땅), 홍색(속죄), 가늘게 꼰 베실(순결, 고난, 인내)로 그룹을 수놓음

- **외부양장** : 검은 염소 털(염소:속죄 제물, 레 5:6, 히 9:12) - 방수, 방습, 방풍, 보온

⑥ **덮개를 덮음(출 26:14)**

- **막의 덮개** :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

- **옷 덮개** : 해달의 가죽 - 광야의 바람과 모래, 태양열과 비로부터 성막 보호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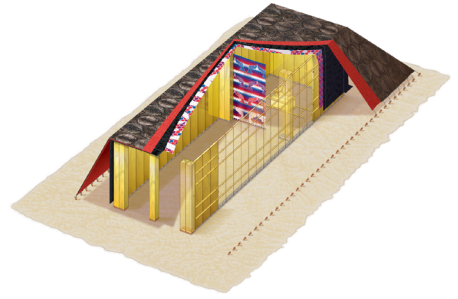
(2) **출 40:20-21** 그가 또 ⑦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⑪ 또 ⑧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⑨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출 37:1-9)**

⑦ **증거궤** :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안팎을 썼다. 그 안에 증거판을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마주하며 날개를 높이 펴서 덮고 있는데, ‘덮다’는 것은 ‘보호, 방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는 수호자의 모습**이다.

⑧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⑨ 지성소의 장을 달았다(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끈 베실로 그릇을 수 놓음).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 출 40:22-23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⑩ 상을 놓고²³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⑪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37:10-11)

⑩ 상을 놓고 :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썼다.

⑪ 떡을 진설함(מִנְחָה מִנְחָה), ‘레헴 파님’ : 면전의 떡)

- 12개의 떡을 두 줄로 쌓아 올렸고,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였다(레 24:8),

- 항상 진설하는 떡(민 4:7), 거룩한 떡(삼상 21:4, 6)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4) 출 40:24-25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⑫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²⁵ 또 여호와 앞에 ⑬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⑫ 순결한 금 등대(레 24:4) : 등대와 등대의 부속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된 정금은 1달란트 (약 45억 원), 원가지에서 6가지로 살구꽃이 있었는데, 이것은 ‘각성, 보호, 희망’의 상징 (항상 깨어 있으라)이다.

7개의 가지로 구성된 등대는 상과 대하여 놓았다. 떡상을 비추는 등대의 빛은 이스라엘을 비추는 여호와의 빛을 상징하며(요 1:4), 하나님의 빛이 온 백성을 향해 축복해 주고 있음을 말씀한다.

민 8:2 ...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떡상) 비취게 할지니..

⑬ 순결한 기름(레 24:2 감람유)으로 등잔에 불을 켜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간검(看儉)해야 한다. 간검(קָנָה, ‘아라크’)은 ‘검사하며 관리하는 일, 질서 있게 배열하다, 정돈하다’라는 뜻으로, 정확히 시간을 지키며 등불을 잘 정돈하여 날마다 등불을 켜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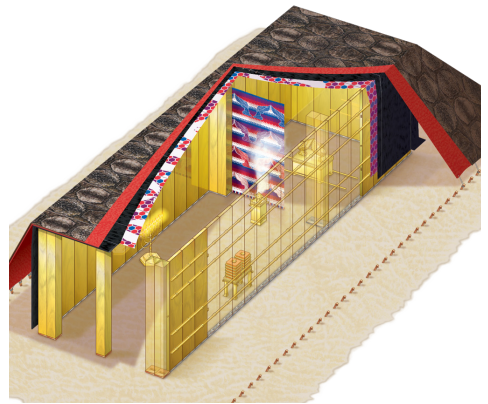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5) 출 40:26-27 그가 또 ⑭ 금 향단을 회막 안장앞에 두고 27 그 위에 ⑮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⑭ 분향단을 두고 :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싹다(금단, 금향단).

- 장 1규빗, 광 1규빗, 고 2규빗으로 네모반듯하다.

- 분향단의 위치는 “속죄소 맞은편”(출 30:6)이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 맞은편에 있던 분향단은,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사역의 처소를 생각나게 한다.



⑮ 향을 사름 :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 지극히 거룩한 향이 있어야 함은 성도의 기도가 거룩해야 함을 보여준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6) 출 40:28-29 그가 또 ⑯ 성막 문에 장을 달고 29 또 회막의 성막 문앞에 ⑰ 번제단을 두고 ⑱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⑯ 성막 문장을 달고

출 36:37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 장(קָנָה, 마사크) = 덮다, 보호하다, 덮개, 방어, 시 105:39)이 외부로부터 성소 안을 보호했다.

⑰ **번제단을 두고** :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썼다(출 27:2).

⑱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림** :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되, 그 연기가 지속해서 위로 피어 오르게 하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드리지게 하기 위해 단 위에 불, 나무, 제물을 두고 불살랐다(레 1:12). **번제단 위의 불은 항상 끊이지 않았다(레 6:13).**

번제단은 솔로몬이 즉위 후 일천번제를 드릴 때도 사용된 것을 볼 때(대하 1:5-6), 솔로몬 성전이 건축(주전 959년)되기 전까지 계속 사용되었을 것이다(주전 1445-959=486년간)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7) **출 40:30-32** 그가 또 ⑲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⑳ **씻을 물을 담고** ㉑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㉒ 그들이 회막에 들어 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⑲ **물두멍의 크기나 형태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물의 양이 제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봉헌한 놋 거울로 만들었다. 물두멍의 표면은 제사장들을 비추는 거울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며, 거울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 자신의 흠을 발견하고 바로잡았다.

⑳ **씻을 물을 담고 수족을 씻었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8) **출 40:33**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㉓ **뜰에 포장을 치고** ㉔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펼하였더라**

㉓ **포장을 치고** : 성막 뜰에 기둥을 남편, 북편에 20개씩, 동편, 서편에 10개씩 세우고, 높이 5규빗(2.28m)의 세포장을 쳤다. 은 기둥머리 싸개를 통해 울타리 안과 밖으로 줄을 매어서 말뚝으로 고정하게 했고, 가름대로 기둥과 기둥을 단단히 연결했으며, 장막을 치면서 말뚝으로 60개의 기둥을 안팎으로 고정시켜, 세마포장과 뜰의 문장을 견고하게 잡아주었다.

㉔ **뜰의 문장을 달음** : 성막의 모든 문은 사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쪽에만 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성막 울타리 안은 보호를 받고 안전하지만, 울타리 밖은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전하다. 성소를 가리켜 ‘내 성소’(레 19:30)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울타리가 구분하는 것이다. **성막 뜰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 언제나 속죄 은총이 충만한 곳이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아름다운 화목을 나누는 곳이다**(레 1:3-17, 6:16, 26).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참고 레 19:14, 26:2),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시 65:4).

→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קָרָא, ‘카라’, 완성)**

성막의 각 기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대로 역사가 필하여지고(קָרָא, ‘아사’) 모세가 백성에게 축복한 것처럼(출 39:42-43), 성막이 세워진 것도 7번의 ‘여호와께서 명하신대로 되니라’가 반복된다. 마치 천지창조 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7번 반복된 것처럼 성막 제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역사로 마지막에 ‘모든 역사를 완성하였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결론 : 성막 완성 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성막이 완성된 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קָבוֹד, ‘카보드’)이 성막에 충만하였다(출 40:34-35).

(1) 성막을 덮은 구름은 자연 현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전체를 덮었다(출 40:36-38, 민 9:15-23, 10:11-12, 34, 14:14, 신 1:33, 시 105:39).

민 14:14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시 105:39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덮개”의 히브리어 ‘마사크’(מָסַךְ)는, 주로 ‘어떤 물건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이라는 뜻으로(출 35:12), 뜨거운 햇빛과 외부의 위협 요소로부터 이스라엘 진 전체를 덮어 보호하셨음을 나타낸다.

성막 위에 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내내 그들을 보호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내 계속되었다.

출 40: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2) 성막을 통해 자기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성육신 사건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출 25:8)라고 말씀하신 성막 건축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즉각 나타나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 모습은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말씀하신 것과 같다.

여기 거하시매(σκηνώω, ‘스케노오’)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70인경에서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영광(δόξα, ‘독사’)은 70인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뜻하는 카보드를 사용하였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예수님께서 참 장막으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영광을 보이셨다.

성막의 겉모습은 보잘것 없는 천막에 불과했지만, 성소 내부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는 정금이었다(출 25:10-40).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사 53:2),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빛나고 있었다(요 1:14).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구름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이다(마 16:27, 계 21:3-4).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막을 통하여 ‘하늘의 참 성전’을 바라보며**(히 8:2, 9:11, 24),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영원한 참 ‘하늘 성소’, “영원한 나라”(시 145:13, 단 4:3, 7:27, 벰후 1:11),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히 11:10), “더 나은 본향 ... 하늘에 있는 것”(히 11:16), “한 성”(히 11:16), “영구한 도성 ... 장차 올 것”(히 13:14), “새 하늘과 새 땅”(사 66:22, 벰후 3:13, 계 21:1),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히 12:22)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

세계적인 석학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

추천과 서평



“성경을 꿰뚫는 깊고도 영적인 연구,
미증유(未曾有,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의
세계적 업적”

원용국 박사

- 안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고고학회 명예회장
- 미국 Southern California대 신학박사

“오직 성경으로만 지은 입체적·환상적
건축물.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

민영진 박사

-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출애굽기, 전도서, 아가서, 사사기, 룻기 저자
- (前)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대한성서공회 총무
- (現) 세계성서공회 아태지역이사회 의장, 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저자는 성경 족보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대가, 본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손석태 박사

-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한국복음주의구약학회 회장
- 기독대학인회(ESF) 이사장, 한국 성서고고학회 부회장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각각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관통할 때 성경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의 명저(名著) '구속사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연구 서적으로서, 놀라운 영적 통찰력과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최고의 책으로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성경 구속사 세미나'는 국내는 물론 해외와 심지어 이슬람 권에서도 개최되어 성경 관련 최고의 세미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자의 복음주의 신앙 사상을 대변하는 구속사 시리즈는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

브루스 월키 박사 Dr. Bruce K. Waltke

- NASB, NIV 성경 번역위원
- (前)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교수, 달라스신학대학교교수
- (現) 닉스 신학대학교 교수

“오직 성경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감과 생명력이 넘치는 책. 젊은 목회자에게 완벽한 모범이 되는 저서”

노먼 매노허 박사 Dr. Norman Manohar

- 페이스 신학대 총장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을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시키셨듯, 박윤식 목사를 세계 선교를 위해 3년 동안 지리산에서 연단시키셨음을 확신한다.”

워렌 게이지 학장 Dr. Warren A. Gage

- 닉스 신학교 구약학 교수 및 학장



약력

- 황해도 사리원 출생
- 총회신학교(학부) 졸업
- 국민대학교 기업경영학과 졸업
- 총회신학교 신학원(목회학 석사)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명예신학박사)
- Lael College and Graduate School (명예목회학박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총회장 역임
- Knox Theological Seminary (명예신학박사)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 휘선 박윤식 목사

휘선 박윤식 목사는 일제 치하의 망국의 설움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으며,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소명감으로 1950년대 후반 감리교단의 서리 전도사로 성역(聖役)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중심’의 목회

이후 지리산 바위동굴 틈에서 3년 6개월 7일의 기도생활을 통해, 낮에는 성경을 읽고 밤에는 기도에 전념하는 영적 수련과정을 거쳐, 평강제일교회의 기초인 ‘말씀 목회’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는 일생동안 ‘오직 말씀’의 구호 아래 ‘말씀 중심’의 목회를 펼쳤고, 1,800번 이상의 성경 읽기와 하루 두 시간 이상의 기도를 통해 6만 5천여 명의 평강제일교회 성도와 국내외 300여 개 교회 개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애국애족’의 정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바탕으로, 매주 목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예배’를 드리며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나라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없다”는 정신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성경 중심의 ‘말씀 목회’와 ‘애국애족’의 정신이 휘선 박윤식 목사의 목회와 삶을 대변해 주는 양대 축이며, 이러한 전 생애가 압축되어 ‘구속사 시리즈’와 ‘근현대사 시리즈’라는 역작이 탄생된 것입니다.

박윤식 목사의 육필 원고

“이 책 내용은 신·구약을 관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놀라운 것인데
저자가 성경을 1,800번 이상 정독했다는
얘기를 듣고야 의문이 풀렸다”

원용국 박사
한국 성서고고학회장

저자는 1960년대 초 산상기도를 통해 기도와 성경읽기에 매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달은 내용을 원고지 수천 장에 걸쳐 기록하여, 성경의 중심 주제인 ‘구속사’를 맥으로 집대성한 역작 ‘구속사 시리즈’를 완성하였습니다.

저자는 “원고지가 없을 때는 큰 칠판 이파리에 적었다가, 바스러지기 전에 원고지를 사와 옮겨 적었습니다.”라고 회고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의 맥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낡은 원고지 속에 살아 숨 쉬는 듯합니다.



“이 책은 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연구물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꿇으면서, 성경을 1,800번 이상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강단에서 50여년 동안 선포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 본 강의안의 성경구절은 개역한글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구속사 시리즈 구매, 교재 활용, 구속사 아카데미, 성경 구속사 세미나 등 구속사 말씀 관련 문의는 사단법인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베스트 셀러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밝히는 **박윤식 목사의 구속사 시리즈**



제1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창세기의 족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개 족장의 족보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아담과 9대손 라멕이 56년간 동시대 생존한 것을 성경적 체계화 정리
-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간 동시대 생존한 것을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2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햇불 언약과 그 성취
잊어버렸던 만남
출애굽과 광야 노정·햇불 언약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광야 42회 친 친 장소의 지도화 및 구속사적 원어 정리
- 아브라함의 가계도 성경적 체계화 정리
- 햇불 언약의 성취 기간 '400년'과 대수(代數) '4대'의 관계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3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I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 시대별 정리
- 누가복음 족보 77명의 이름 원어적 정리
- 다윗의 도피 행로, 사사 시대의 연대기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4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II
영원한 언약 속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열왕들의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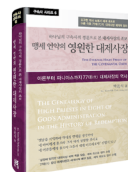
- 3천년 만에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약 6년 6개월) 성경적 체계화 정리
- 히브리 왕들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통해 구속사적 관점에서 연구



제5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III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와 세계사의 변천 과정 성경적 체계화 정리, 도표화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빠진 부분 정리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 14대 인물의 구속사적 정리



제6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대제사장의 족보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아론 이후 77대(代) 대제사장 체계적 정리
- 성경에 입각한 대제사장 예복 착용 모습 체계화 정리
- 77대(代) 유대 대제사장과 세계사의 변천 도표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7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영원한 만대의 언약 십계명
히브리어로 읽는 십계명과 세부 율법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모세의 8차례 시내산 등정 과정과 날짜 및 요일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시편 119편에 사용된 10가지 '말씀'과 관련된 단어 성경적 체계화 정리
-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십계명 해석과 교훈 정리



제8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햇불 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성경에 감추인 신묘한 '요일'의 계시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애굽 10대 재앙과 광야 노정의 날짜별 체계화 정리
- 출애굽과 광야 노정 경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9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성막과 언약궤의 세부 내용과 이동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원어에 입각한 성막과 그 기구 식량의 성경적 체계화 정리, 도표화
- 성막과 법궤(증거궤)의 분리와 이동의 역사, 경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성막을 세우는 순서의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10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을 연도별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주적 축복과 그의 순종을 통한 구속사적 성취
-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 지도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11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에스겔에게 보여 주신 새 성전의 이상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새 성전 속에 담긴 신비로운 구속 경륜
- 성경에 입각한 에스겔 성전 평면도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12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스룹바벨 성전과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과정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제1-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에 담긴 신비로운 구속 경륜
- 42구역으로 나누어 중수된 12문 예루살렘 성벽 지도 세계 최초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수록

도서출판 휘선

휘선(暉宣)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침빛이 전 세계 속에
흘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이름입니다.

구입문의 02-2684-6082

구입처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리브로 / YES24 / 인터파크 /
알라딘 / 대교리브로